

原油價格政策과 OPEC의 安定性

이 자료는 2차석유파동이 일어난 직후 原油價格政策과 OPEC의 安定性을 분석한 美國 휴스턴大學의 James Griffin 교수와 2명의 學者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Recent Oil Price Escalations: Implications for OPEC Stability)을 발췌·번역한 것이다. <編輯者註>

I. 序 言

1978~1979년의 이란혁명으로 국제석유가격은 배럴당 15달러에서 32달러로 급등하였다. 최근의 경험으로 볼 때 民間과 公共部門에서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승세가 항구적이며 實質油價가 향후 상승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1981~1982년의 價格弱勢은 근본적으로 유럽과 美國에서의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이탈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추세는 장기적인 需要와 供給에 따른 결과이며, 미래가격추세의 前兆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견해는 1978-79년 가격상승폭이 궁극적으로 석유에 대한 장기수급의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인 變化를 폭발시켰던 분수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變化를 초래케 한 잠재적인 要因은 많이 있다. 지금 거대한 合成石油工場이 美國, 캐나다, 베네수엘라 등 여러나라에서 건설되고 있다.

사우디가 구상하고 있는 生産能力擴張계획은 그 나라가 지금 세계석유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生産能力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사우디가 제안한 가격공식체계는 換率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과거 가격상승으로 위기를 겪고나서 크게 관심을 두

게 된 세계경제성장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사태추이는 OPEC카르텔의 앞으로의 안정과 관련된 일부 장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이란革命 이후의 油價經路(1980년 實質價格으로 \$32/Bbl)와 革命前의 價格經路(1980년 價格으로 \$15/Bbl)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탐구해 보고자 한다.

II. 原油供給展望

여기서 다루고 있는 原油供給에 대한 전망은 13個 OPEC會員國들과 共產圈을 제외한 27個 非OPEC國家들에 대해서 행하여졌다. 이들 전망 또한 1980~2000년에 걸쳐 각 나라에 대한 追加埋藏量, 產油量, 그리고 年末埋藏量의 형태로 每年 추정되고 있다.

대체로 추가매장량에 대한 推定値는 그 나라의 예상매장량을 기준으로 하여 發見·未發見埋藏量에 대한 地質的인 자료에 기초를 두고 있다. 멕시코, 이라크, 베네수엘라, 카메룬, 아르헨티나, 브라질, 튀니지, 캐나다, 濠洲, 리비아, 가봉에 대해서는 政府와 石油會社들의 見解가 미래의 추가매장량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물론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래의 發見可能性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덜 것이다.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는 發見可能埋藏量에 대한 比較的 정확한 추정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에 있어서 대규모 추가매장량은 향후 20년간 高價의 수준으로 利用可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석유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하여 온 나라들에 대해서는 追加埋藏量의 추정치가 技術水準에 보다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미 발견되어 生産된 매장량에 대한 費用의 기술적 推定問題가 보다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새로이 發見되고 있거나 이미 開發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經濟的 資料가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政治的, 文化的 要素들이 資源을 발견·개발·生産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이점에서 OPEC국가들은 價格과 生産上界限의 高低의 어떤 면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온건파와 강경파로 구분하고 있다.

OPEC會員국의 3개 블럭

여기서 공급전망은 세가지 範圍로 나누어져서 행해진다. (1) OPEC회원국, (2) 공산권을 제외한 非OPEC産油國, 그리고 (3) 共產圈産油國. OPEC회원국은 다시 세 集團으로 나누어진다. (a) 産油量極大化 그룹, (b) 價格極大化 그룹, 그리고 (c) 카르텔 核心 그룹. 앞으로의 油價趨勢는 OPEC 카르텔에 의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준은 높아질 것이고 새로운 매장량과 생산시설이 개발되어 平常時의 利潤을 초과하게 될 것이다.

카르텔 핵심국들은 막대한 石油埋藏量과 상대적으로 적은 人口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油價水準과 独占力을 유지하는데는 상대적으로 낮은 生産率로도 가능하며 경제발전계획도 보다 伸縮性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非OPEC産油國들은 세계석유시장에서 競爭者로서 행동하게 되며 이들 국가의 産油量은 점차 생산비용이 OPEC 油價와 같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增加할 것으로 假定되고 있다.

한편, OPEC의 산유량극대화 그룹은 근본적으로 非OPEC國家들이 시장을 分割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산유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여 價格이 限界費用과 같아지는 수

준에 이르기까지 생산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OPEC의 産油量極大化 그룹은 石油埋藏量이 상대적으로 적고 人口가 많은 國內經濟開發에 점차 큰 壓力을 받고 있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이 經濟發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OPEC가 결정한 가격수준에서 産油量을 증가시켜야 하는 動機를 가지게 된다. 카르텔 핵심국들과는 달리 이들 국가들은 石油輸出物量을 증대시킴으로써 국내경제에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고 투자수익을 높이는 효율적인 投資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極大化 그룹

OPEC의 價格極大化 그룹은 카르텔핵심국들과 산유량극대화국들 사이에 있다. 가격극대화 그룹은 산유량극대화국들과 유사한 행동을 취한다. 이들 산유국도 産油量極大化국가들 처럼 상대적으로 많은 人口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대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OPEC會員國들과는 달리 그들의 埋藏量은 현재의 生産率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카르텔핵심국들의 경우처럼) 앞으로도 현저한 擴張能力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供給不足期間동안에는 가격극대화국가들의 행동이 카르텔핵심그룹을 도와왔는데, 이는 그들이 산유량을 감축함으로써 높은 가격으로 그들의 目標收入을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격극대화 그룹이 전체능력에 가깝게 생산하여 왔지만 그들이 하고자 한 목표는 石油價格의 下落을 피하고 가격안정을 촉진하려는 데 있다. 그들의 産油量은 OPEC全體의 그것보다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生産能力을 擴張시킨다는 것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평상시에 OPEC가 가격에 대한 下向壓力에 물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生産能力에 가까운 수준까지 生産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非OPEC國家의 공급이 증가하면 이들 가격극대화 그룹의 행동은 OPEC를 점차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가격극대화국가들은 油價가 하락하면 石油輸出收入을 유지하기 위해 産油量을 늘리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카르텔핵심국들과 같은 카르텔 安定促進要素로부터 (산유량극대

화국을 처럼) 不安定을 조성하는 요소를 변모하게 될 것이다.

카르텔핵심 그룹

다음 카르텔핵심국으로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 그리고 리비아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위에서 기술한 특징(많은 석유매장량, 적은 人口, 그리고 불모의 사막지대로 특징지워지고 있는 地質)을 가지고 있다.

과거 分析家들은 이들 경제의 吸收能力이 매우 制限的이고, 따라서 國內發展의 압력을 전혀 받지 않아 OPEC 油價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낮은 生産率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假定을 내세웠다.

Adolman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직된 흡수능력은 사우디 국내에서의 놀랄만한 국내투자의 성장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내세운 가정은 국내투자능력이 擴張될 수 있는 반면 완전히 신축적이나 하는 것이다. 카르텔핵심국들은 產油量을 감축하고도 석유수입감소를 견디어 낼 수 있고, 여타의 나라에서 경험한 심각한 국내문제를 발생치 않고도 국내투자를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체로 아라비아반도 회원국들은 보다 큰 초과능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對OPEC 石油需要不足期에도 가격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政策은 기타 OPEC 회원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이유 중에서도 그들은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래에 OPEC 석유에 대한 代替資源이 개발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비아는 유럽시장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油質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自國產原油에 대해 높은 가격을 주장해 왔다. 리비아는 국내발전에 사용되고 있는 石油收入이 매우 적으므로 석유수요가 침체된 기간에는 카르텔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체산유량을 쉽게 減縮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장량 적은 가격극대화 그룹

가격극대화 그룹은 알제리, 이란 그리고 베네수

엘라로 구성되어 있다. OPEC 創設 이래 베네수엘라는 自國의 매장량 對 生産량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1人당埋藏量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배럴당 油價를 높이고 生産량을 억제할 것을 주장해 왔다.

베네수엘라는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 매년 石油輸出收入에 많은 관심을 두어 왔는데 수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알제리도 리비아처럼 유럽시장에 근접한 위치에 있어 良質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自國產 石油의 가격극대화를 열렬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알제리는 產油量에 비하여 매장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1人당 매장량도 적다. 알제리는 아마도 OPEC의 어느 會員國보다도 전체시설능력에 근접한 수준으로 석유를 생산하고 있을 것이다. 이 나라는 油價와 산유량을 모두 극대화하려 하는 카르텔 會員國의 전형적인 例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OPEC 內에서 세번째로 가격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란도 이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 1978년 이란혁명 以前에는 이란의 政策이 以前의 統治者의 야심적인 經濟·軍事發展計劃의 재원을 조달키 위해 油價와 산유량을 극대화하는데 있었다. 비록 많은 석유매장량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나라의 人口 역시 어느 價格極大化國들 보다 더 많고 경제발전의 잠재력 역시 컸었다. 여기 이란의 미래의 매장량과 生産량을 전망하는데 있어서는 이란의 석유매장량이 보다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管理下에서 개발될 것을 가정하고 전망되었다.

產油量 極大化그룹

產油量 極大化그룹은 이라크,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그리고 가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명칭은 論理的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경제개발에 대한 의욕이 많으며, 1인당 매장량비율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긴 하지만, 확장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 산유국들이 장기적으로 산유량을 극대화하는데 目標를 두고 있으므로 붙여진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다른 OPEC 회원국들, 특히 카르

텔핵심국들이 高油價를 유지하기 위해 산유량을 제한하려고 하는 한 가격이 限界費用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산유량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는 非OPEC 產油國과 같은 行動動機를 갖게 될 것이다.

이라크는 需要가 弱勢일 때 조차도 필요할 때는 가격을 割引하면서까지 產油量을 늘리는 등 산유량 극대화 戰略을 적극적으로 펴 왔다. 부분적으로 이라크의 산유량확장 전략은 현재의 산유량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데 비해 잠재매장량이 매우 많은 데 따른 것이다(약 3천억배럴로 추정되고 있음).

이라크는 또한 하심적인 국내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카르텔 전체산유량에서 자국의 할당량을 늘림으로써 OPEC 내에서 자국의 역할을 伸張시키기 위해 수출물량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이라크가 공식적으로는 가격안정과 생산량 抑制를 옹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나라에 당면한 壓力과 실질적인 機會로 말미암아 점차 산유량 극대화국으로 移行하여 가고 있는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OPEC 회원국에서 가장 많고 경제개발계획이 石油收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 石油埋藏量은 많지는 않지만, 확장이 가능하므로 이라크 다음으로 산유량을 극대화하는 정책에 따르고 있는 국가라고 하겠다.

나이지리아는 OPEC 회원국들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特徵들에 있어서는 가봉은 근본적으로 나이지리아의 縮小版이라 할 수 있다.

매장량의 예상증가량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해서는 確認埋藏量이 高價格水準에서 충분한 개발활동을 한다면이라도 現生産량을 제외하고 每年 20억배럴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추가매장량이 높은 比率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開發誘引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쿠웨이트의 공식확인매장량은 자발적인 自体生産限界부과로 수년동안 정체되어 왔으나 매장량 생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쿠웨이트의 확인매장량은 1990년에 600억 배럴 정도로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2000년까지 同水準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카타르의 매장량은 1990년에 약 45억 배럴 정도로 최고수준까지 증가했다가 그 이후 서서히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UAE의 매장량은 1995년까지 약 150억 배럴로 감소하고 나서 그 후 2000년까지는 同水準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리비아는 현재 새로운 매장량이 발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매장량이 前途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1980~85년 사이에 200억 배럴에서 약 400억 배럴로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 2000년까지는 375억 배럴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追加埋藏量이 20년동안 절대적으로 늘어나 카르텔핵심국내의 확인매장량은 1980년의 2930억 배럴에서 2000년에는 3255억 배럴로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극대화 그룹을 살펴 보면 알제리의 매장량은 1982-85년에 10억 배럴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0년에 85억 배럴로, 그리고 2000년에는 70억 배럴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今世紀 나머지 기간동안에 100wb/d 이상을 생산하기에는 알제리의 한정된 매장량으로 볼 때 제약이 있다.

베네수엘라의 산유량을 예측하기란 同그룹 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가격이 상승하면(타르地帶를 제외하고) 개발이 곤란한 지역과 높은 산유량비율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간 대체로 매장량이 不變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란의 매장량 역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환경이 개선되고 이란 산유량이 革命前의水準에 더욱 肉薄해 간다고 가정하면, 2000년까지의 매장량은 완만히 감소(1980년에 575억 배럴에서 2000년에는 500억 배럴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유량극대화 그룹에 대해서 살펴 보면 이라크는 1980~2000년에 310억 배럴에서 465억 배럴로 그 매장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동시에 每年 產油量比率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도 리비아처럼 自体埋藏量을 증가시키기 위한 探查努力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調整이 정부와 석유회사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매장량증가는 가능할 것 같다. 따

라서 여기서는 同國의 매장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리비아와 나이지리아들처럼 그의 매장량을 증대시키고자 하나 전체매장량이 줄어드는 입장에 있다. 1980~1994년에는 성공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95억에서 111억 배럴로 증대시킬 수는 있을 것이나 2000년에 들어서 105억 배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高油價水準에서는 이러한 매장량증가가 20년 동안 生産率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에콰도르의 매장량은 1979년에 11억 배럴에 불과하였는데 1990년에는 15억 배럴로 증가하다가 2000년에는 13억 배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봉의 매장량은 1978년에 약 50억 배럴 수준이었는데 1995년에는 80억 배럴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산유량국대화 그룹의 全體埋藏量은 1980년에 646억 배럴에서 2000년에 891억 배럴로 증대할 것이다.

Ⅲ. 이란革命 後의 油價비교

여기에서는 1980~2000년 동안의 세계유가에 대한 대체가격경로를 조사하였다.

실질油價 15\$에서 자유세계국가의 석유수요는 年率 3.2%로 성장하여 2000년에는 98백만b/d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非OPEC국가들의 공급이 18.1백만b/d에서 2000년에 30.7백만b/d로 늘어난다 해도 OPEC의 시장점유율은 확장되어 그 생산량이 36.4백만b/d에서 67.3백만b/d로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카르텔핵심국들이 이러한 수요신장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유량국대화 그룹은 7.5백만b/d에서 2000년에 1,000만b/d로 완만하게 생산량을 확장하여 나갈 것이다. 동시에 가격국대화 그룹의 생산율은 불변할 것이나 카르텔핵심국들의 생산량은 급격한 신장율을 보여 2,250만b/d에서 2000년에 5,110만b/d로 늘어날 것이다.

요약하면 15\$의 실질유가경로에서는 OPEC가 세계석유생산량의 점유율을 넓혀 나갈 것이고 특히 OPEC생산량 중 카르텔핵심국들의 점유율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다.

OPEC원유에 대한 시장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유량국대화국들은 15\$의 실질유가 경로에서보다 약 10% 더 빠른 속도로 산유량을 증대시켜 高油價에 반응할 것이다. 이들의 생산량증가는 대체로 유가가 상승하면 완만하게 생산량을 줄이게 될 가격국대화그룹에 의해 상쇄될 것이다.

가격 및 산유량국대화 그룹들이 사실상 상대방의 생산반응을 상쇄하기 때문에 결국 카르텔핵심국들이 석유수요의 감소를 흡수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핵심산유국들은 생산량이 1,440만b/d에서 2000년에 620만b/d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Ⅳ. 내재된 不安定性

OPEC산유국들 사이에 내재된 갈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과 가채년수, 즉 R/P 비율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15\$의 실질유가경로에서 가채년수는 모든 산유국들에 있어서 줄어들 것이므로 市況이 산유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특히 OPEC의 전반적인 가채년수는 1980년에 36.3년에서 2000년에는 19.5년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주로 카르텔핵심국들의 가채년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기인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명백히 OPEC의 안정을 다시 강화할 것이다.

15\$의 실질유가경로에서 시장점유율의 추세 역시 카르텔의 안정을 의미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많이 늘어나는 그룹은 카르텔핵심국들로 그들의 점유율은 80년에 41.4%에서 2000년에 52.1%가 될 것이다. 카르텔핵심국들이 잉여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의 R/P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시장점유율은 늘어날 것이므로 카르텔의 안정이 실질유가 15\$에서 위협을 받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어떠한 油價하락경향도 카르텔핵심국들의 생산감소로 쉽게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실질유가 32\$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게 된다.

카르텔핵심국들의 시장점유율이 확장되기는 커녕 30.7%에서 2000년에는 10.5%로 줄어들 것이다. 동시에 가채년수(R/P비율)는 53.4년에는 149.3년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카르텔핵

심국내에 바람직하지 못한 초과능력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카르텔의 안정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1980년대에 R/P비율이 감소하고 다음 90년대부터는 증가전망을 보이고 있는 가격극대화 그룹의 地位일 것이다. 대체로 생산율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실질수입의 흐름도 일정할 것이므로 늘어나는 흡수능력이 그들의 石油收入을 초과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들 산유국들은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부분적으로 유가를 인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카르텔핵심국들의 생산량이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점차로 늘어나게 될 것임은 틀림없고, 상대적으로 가격극대화 그룹은 그들의 산유량증대가 점차 둔화되어 2000년에 10.5%의 시장점유율 밖에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32\$의 실질유가경로에서는 카르텔핵심국들이 심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가격극대화 그룹에 의한 유가인하도 나타날 것이다.

요컨대 15\$의 실질유가경로가 OPEC에게 상당한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고 반면 32\$의 실질유가경로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두 시나리오에서는 카르텔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카르텔핵심국들이 극히 다른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5\$의 실질유가경로에서는 R/P비율이 떨어지는 반면 시장점유율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명백히 카르텔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다. 한편 실질유가 32\$에서는 핵심국들의 시장점유율은 급

격히 줄어드는 반면 R/P비율은 현재보다 3배까지 늘어날 것이다. 카르텔핵심국들에게는 이러한 추세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임은 뻔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 모델에서 가정된 OPEC 행동下에서 실질유가가 32\$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下에서는 카르텔 핵심국들이 다음과 같⁹ 대안을 포함한 카르텔운영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사전에 시장점유율 할당 내지는 (2) 주요 산유량극대화국들에 의한 산유량 억제.

비록 시장할당의 개념이 카르텔의 안정을 확보하는데 매력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간다. 자체산유량에 대한 조정이 오랫동안 독립적인 문제로 다뤄져 왔다. 한편 산유량극대화 그룹으로부터 카르텔핵심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로 인하여 카르텔핵심국들이 점차 더 많아질 것 같다.

특히 이라크는 매장량이 많아 카르텔핵심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핵심국들이 가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를 산유량극대화국으로서 행동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

아 물론 이러한 애매한 요인들로써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따라서 그 결과는 『유가안정이 계속될 것이다』에서부터 『가격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

절약하는 국민앞에

석유파동 피해간다